

# 화순군,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성과 공유



화순군은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평가회를 열었다. 시범사업 참여 농가 20여 명과 관계자 등 평가회 참석자들은 5개 분야 20개소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상품 품종이 관행과 비교해 5% 향상돼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스마트팜 활용 고온기 대응 시설 시범’ 사업은 포그식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해 온도저감과 무인방제에 활용한 결과, 내부 온도를 3℃ 줄여 고온기에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재배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한 ‘아열대 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모링가 재배’, ‘애플수박 재배’ 시범 사업도 성과가 있었다. 패션프루트 재배는 아직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초기 활착 등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열대 과수 중 비교적 난방비가 적고 들고 장기 재배에 따른 생력화가 가능하고 소비자인지도가 높아 미래 작목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애플수박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군, 숲 알렉산더 테크닉 참가자 모집

숲에서 심신을 치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서둘러 전남 곡성군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곡성군 꿈농자학교에서는 가을을 맞이해 ‘숲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숲 알렉산더 테크닉은 F.M. 알렉산더(1869~1955)에 의해 만들어진 숲을 활용한 심신 회복 기법이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고정된 생각과 행동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감각인식요법을 수정하고 편안한 자세를 회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곡성군에서 진행되는 알렉산더 테크닉은 총 6차시 과정으로 진행

된다. 9월 7일에 시작해 11월 16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반(13:00~15:00)과 성인반(16:00~18:00)으로 나눠 운영한다. 청소년반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반은 지역주민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숲 알렉산더 테크닉을 숙달하기 위해서 6차시 수업에 모두 참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 참가할 수도 있다. 곡성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몸과 감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참가자를 매 차시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담양군,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담양군이 지난 2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하반기 기간제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

업담당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신세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및 근로 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법 등을 강연해 근로자 및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담양=박종영 기자

## ‘제3회 여수음악제’ 29일 개막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 여수시는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3회 여수음악제’가 오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음마루와 이순신광장 등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음악 꿈나무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개막공연은 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 예음마루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2017년 반클라이비엔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신우예린

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 지역 학생으로 구성된 음악학교 수료생과 KBS교향악단 단원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을 협연하며 감동을 선사한다. 행사 2일 차에는 여수시청 로비에서 KBS교향악단이 실내악을 연주하고, 신우예린은 여수예양병원을 찾아 무료 공연을 펼친다. 저녁 7시 30분 예음마루 대극장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Lake Louise, Romance 등 베스트 자작곡이 울려 퍼진다. 3일 차에는 예술의 섬 장도에서 타

악기 앙상블이 개최되고, 이순신광장에서 개그맨 송준근의 사회로 팬텀싱어 권서경과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이 무대를 꾸민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바 이올린 거장 강동석이 오후 5시부터 예음마루 대극장에서 베토벤과 브루흐 작곡으로 피아노를 장식한다. 예음마루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유료고, 나머지 공연은 무료다. 음악제 티켓은 예음마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등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R석 2만 원, S석 1만 원, 청소년 5000원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영광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전액 지원

영광군은 최근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 검사비 지원을 위해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뚝병원, 복음내과 의원, 영광안과의원 등 관내 4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아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면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합병증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장기능, 안과검사 등으로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군은 30세 이상 보건기관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환자 1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전 검사 무료쿠폰을 배부할 예

정이며 대상자는 협약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으려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구례군, 2030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위해 간담회 가져

구례군은 23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 사회단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종합발전계획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각 사회단체에서 생각하는 군의 발전 잠재력, 미래상, 부문별 정책 등을 제안 받고 자유 토론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자연친화적 교육도시 조성, 역사와 문화 콘텐츠 개발, 각종 산업 및 생활SOC 개발,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및 전략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대응정책, 농촌문화화를 바꾸고 있는 귀농귀촌인과 다문화가정 대응정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비전 2030 종합발전계획은 미래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희 기자

## 순천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봄-UP 토론회’ 가져

순천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정책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in 전남·순천’의 성공개최와 순천다운 박람회를 위해 최근 허석순천시장을 주재로 ‘균형발전박람회 봄-UP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 전문가, 관계자 및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박람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전시장, 개막식장 등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룬 순천시의 사례

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가 홍보할 전시관은 순천시 관과 혁신관, 푸드 마켓 등으로 구성되고, 테마는 차별화된 우수 사례와 함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재로 순천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순천시 미래의 컨셉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국가 균형발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 감소 도시인 우리 순천시의 균형발전 사례와 순천만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게 내실 있게 준비하고, 관계부처, 박람회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박람회가 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8월말 박람회 실행계획 및 부서별 추진상황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행사를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신청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신청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